

22. 삼별초(三別抄)의 본거(本據) 향파두리(缸坡頭里)⁴⁵⁾

- ◎ 김통정(金通精) 장군 내외성(內外城)을 쌓아 항쟁(抗爭)
- ◎ 여원연합군(麗元聯合軍)의 포화(砲火)로 성(城)은 불바다
되어

삼별초(三別抄)의 난은 제주도의 역사에 여러모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삼별초와 여원연합군(麗元聯合軍)의 대병력이 제주도를 무대로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삼별초가 전멸한 뒤에는 원의 백년 지배를 초래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항쟁할 때 2년 동안에 걸쳐 그 본거지가 되었던 곳이 이 향파두리(缸坡頭里)[속칭 · 향바두리]였다. 북제주군 애월읍(涯月邑) 고성리(古城里) 서남쪽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이 향파두리에는 지금도 당시에 쌓았던 토성(土城)이 남아 있고 주춧돌, 돌쩌귀, 기와 등

45) 『한라일보』 제124호 (1989. 09. 16).



! 이 그림은 항몽유적지 전시관에 소장된 축성도! 김통정 장군의 지휘 아래 제주에 진주한 삼별초는 향파두리에 내외성을 쌓아 여원연합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과 전설에 얹힌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내륙(內陸)에 기습(奇襲) 감행

삼별초가 진도(珍島)의 싸움에서 여원연합군에게 패하여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1271년(원종 12) 5월이었다. 삼별초를 이끌고 온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이곳을 본거지로 선택한 데는 위치와 지형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적의 상륙 예상 지점으로 판단되는 함덕포(咸德浦)에서 명월포(明月浦) 까지를 놓고 볼 때 대체로 그 중간 위치에 해당된다.

둘째는 지대가 알맞게 높고 시야가 트여 전면의 광범한 해안선을 조망할 수가 있다.

셋째는 삼면이 하천 계곡에 면하고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라는 점 등이 배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통정 장군은 이곳에 내외성을 쌓아 여러 가지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바깥 성은 언덕과 계천을 따라 타원형의 토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15리에 성내 면적은 30만평이나 되었으며 4대문을 설치하였다. 내성은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약 8백m의 사각형이었으며 정문과 후문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외성에는 대궐을 비롯하여 관아, 병사, 후방소, 군기고, 옥사, 훈련장 등 제 시설이 갖추졌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원래 돌이 많은 지역인데도 이때 바깥 성을 흙과 돌을 섞은 토성으로 쌓은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석공(石工) 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때 삼별초의 병력에 대하여는 정확한 숫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가족을 포함하여 대체로 3천 안팎이었다고 생각되며 군사는 2천에도 미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이미 진도 싸움에서 많은 병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때 제주도의 인구는 약 1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석공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방대한 성을 단시일에 축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항파두성 외에도 삼별초는 명월(明月)과 애월(涯月)에는 목성(木城)을 축조하고 조공포(朝貢浦, 외도 포구), 귀일포 애월포, 명월포, 조천

포 등에는 군항시설을 갖추었으며 해안 3백리에는 환해장성(環海長城)을 쌓았다.

삼별초는 이 방대한 시설들을 대체로 1년 이내에 마쳤던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삼별초가 진주한 이듬해인 1272년(원종 13) 3월부터는 삼별초가 내륙지방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개시하여 교란작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삼별초가 제주도의 방어시설을 어느 정도 닦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사』 등 여러 기록을 보면 이때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 동안 전라도 경상도는 물론 경기도와 충청도의 깊숙이까지 공격을 감행하여 관리들을 사살 또는 포로로 하였으며 관아, 군사시설, 전선(戰船) 등을 불사르고 곡미 등 많은 군량을 탈취하고 있다.

이처럼 삼별초의 교란작전이 그치지 않자 원나라와 려정(麗廷)에서는 회유공작을 서둘게 되었다. 금훈(琴熏)을 제주초유사(濟州招諭使)로 보내고 또 김통정 장군의 조카 김찬(金贊)을 사절로 보내는 등 몇 차례의 강화 교섭이 있었지만 모두 김장군에 의하여 거부되고 말았다.

삼별초(三別抄)의 최후(最後)

1273년(원종 14) 2월 드디어 여원연합군이 반남(潘南, 나주)에서 편성되었다. 고려 측에서는 김방경(金方慶)을 행영중군병마원수(行營中軍兵馬元帥)로 군사 6천과 수수(水手) 3천을, 원나라에서는 혼도(忻都), 홍다구(洪茶丘)를 원수(元帥)로 둔전군(屯田軍) 2천과 한군(漢軍) 2천 등 총 1만 3천에 이르는 대병력이었다.

이들이 추자도(楸子島)에서 후풍(候風)하다가 제주도에 상륙한 것은 그해 4월 28일 새벽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도중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하거나 되돌아간 것도 있어 실제 제주에 상륙한 병력은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함덕포와 비양도(飛揚島)로 상륙, 동서로 삼별초를 협공하였다. 항과두리 공방전에 앞서 과군봉(破軍峰) 전투가 벌어졌는데 피아의 많은 희생 끝에 마침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연합군은 물밀 듯이 쳐들어와 항과두리 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연합군은 삼별초의 5배가 넘는 대병력이었고 화총(火銃), 화포(火砲) 등 새로운 병기를 지니고 있었다. 활이나 창검을 가지고는 삼별초가 제아무리 날래다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해 낼 수가 없었다.

어느새 항과두성은 연합군이 쏜 포화로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으며 연일 계속된 전투로 전사들은 더 싸울 기력을 잃고 있었다. 게다가 그 대로 버틸 경우 1천 3백이나 되는 부녀자와 어린이들까지 모두 죽을 상황이었다.

김통정 장군은 재기를 노리기로 결심하고 부하 70기(騎)를 거느리고 성을 탈출했다. 그러나 연합군이 그대로 놓아둘 리 없었다. 끈질긴 추격전이 계속되다가 그들은 마침내 붉은오름에서 최후의 일전을 치렀다. 여기서 삼별초는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다 비통하게 전사하였다.

다만 김통정 장군 홀로 살아남아 간신히 한라산중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다시 재기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자 그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 1270년(원종 11) 6월, 원의 침략과 고려조정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지 만 3년 만에 삼별초의 난은 최후의 막을 닫은 것이었다.



| 항몽순의비(애월 고성리) | 몽고(원)와의 강화에 반대하며 항몽전을 일으킨 삼별초의 최후 격전지에 1978년 세움. 삼별초는 1270년 6월 강화도에서 반기를 들며 봉기한 후 진도를 거쳐 1271년 5월 제주에 들어와 이후 1273년 5월까지 2년간 제주도에서 항몽전을 전개하였다.



| 항파두리 토성(애월 고성리) | 1978년 복원된 토성 북서부 일대.



| 항파두리 토성(애월 고성리) | 1978년 복원된 토성 북동부 일대.

지금 항파두리에는 1978년부터 항몽유적비(抗蒙遺蹟碑)를 비롯하여 관리사·휴게소·전시관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고 토성이 보수되는 등 유적지 정화사업이 이루어져 북제주군 당국에 의하여 관리 보존되고 있다.